

전선의 수출입 동향 분석

이 우 공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1. 서론

지난해부터 우리 전선업계는 내수가 없다고 온통 울상이다. 수출도 잘 안되고 내수도 줄어 공장유지가 매우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다.

수출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중국의 전선산업이 포화상태이고 또 가격이 우리와 상대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선산업을 중국을 보고 시작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내수가 없다는데 귀착된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잘되는 시기도 있고 잘 안되는 시기도 있는데 항상 잘되는 시기를 기준해서 조금이라도 안되면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345kV 기간 송전전압을 765kV로 격상시켜 선로공사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 전선업계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내수가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였고, 생산도 연평균 11% 이상 증

가하였다. 그러나 전선업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내재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전기분야 중에서도 유별나게 전선업계가 국내외에서 과당경쟁을 하면서 출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면서도 상도덕적 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체수의계약도 '99년까지면 끝이 나는데 이제 3년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일부업체는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고 기술개발 투자도 많이 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많은 업체들은 현상유지만 하면서 일부업체의 사업확장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 더더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최근의 국제화, 개방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한 인력감축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천적인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화와 개방화가 너무 빨리 도입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며 우리시장을 외국에 내어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업계는 내수안주라는 의식이 강하게 뿌리박혀 기술개발과 수출을 소홀히 해 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산제품의 품질에 및 신뢰에 대한 믿음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지 못한 탓에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사상이 커졌음에도 기술개발에 소홀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전선산업은 3~4년이 생존의 고비 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범용제품 생산기술은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발도상 국가들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하기 직전에 놓여 있으며,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에 대한 기술은 선진국에 많은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 업체들의 동남아 현지공장의 신·증설로 우리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동남아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까지도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넘겨 주어야 할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무역기구에 의한 시장개방이 금년부터 시작되고 2000년부터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 무세화가 시작되며, 올해부터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증전기기, 가전기기 등 모든 분야에서 관세무세화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어서 기술과 경쟁력이 약한 우리 업체로서는 날로 입지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이제부터라도 국내외에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야 할 것이다.

전선의 수출입 동향을 기고하게 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언급한다면 우리 업계에 전선의 수급동향을 알리고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수입을 줄여 보자는 의도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전선의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록,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전선의 수급동향

우리나라 전선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92년 이후 '96년까지 내수는 연평균 12.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은 내수증가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11.6%의 성장에 머물렀고, 수출은 연평균 15.4%라는 높은 성장을 하였으나 생산의 20% 수준에 그쳤으며, 수입은 연평균 34%의 고도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입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전선의 수급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92	93	94	95	96	연평균증가율 (%)	
수요	내수	1,716	1,777	2,177	2,539	2,731	12.3
	수출	353	397	362	490	625	15.4
계	2,068	2,174	2,539	3,028	3,357	12.9	
공급	생산	1,976	2,019	2,388	2,794	3,061	11.6
	수입	93	155	151	234	300	34.0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3년에는 내수가 전년대비 3.6% 성장에 그쳤으며, 생산은 전년대비 2.2% 성장에 그쳐 결과적으로 수입이 전년대비 66.7%나 증가하게 되었다. '94년에는 내수가 전년대비 22.5%나 성장하였고 생산도 18.3%가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내수에 비해 생산부진으로 전년대비 9.7%가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전년대비 2.7%나 감소하였다.

'95년도에는 '90년대 초반중 수급량이 가장 증가한 해로서 내수는 전년대비 16.6%가 증가하였고 생산은 17%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35.4%, 수입은 28.2%나 증가되었다.

전선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훨씬 높은데도 아직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높은 수입증가율과 국내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2~3년내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연평균성장률(%)			
																	'81~'91	'86~'91	'91~'96	'93~'96
수출	99	118	133	95	93	130	154	217	152	157	283	353	397	362	490	625	11.1	16.8	17.2	16.3

가. 수출

전선은 권선용전선, 통신케이블 그리고 전력케이블의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전선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81년에 9900만불의 수출에 불과하던 것이 10년후인 '91년에는 2억 8300만불로 약 3배의 규모로 커졌으며, 10년 동안 연평균 16.8%의 성장을 하였고 '86~'96년까지 10년간은 연평균 17.0%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 '90년대 초에는 연평균 50%의 초고도 성장을 하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전선산업이 생산기반을 갖추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90년도 상반기에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26%의 고도성장을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표로 볼 수 있다.

'94년도에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케이블 TV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年)였는데 사업이 갑자기 확정되는 바람에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여 우리나라 전선수출을 주도하는 통신케이블의 내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해외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수입을 해야 하는 형편에 처

하게 되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0년대 초기에 내수도 많이 증가하고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전선산업은 호황기를 맞고 있는 듯 하였으나 대기업과 건설한 중소기업 몇몇을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96년에는 내수신장세가 둔화되어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27.5%라는 큰 증가를 기록하였다(표 2 참조).

연도별·품목별로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81~'91년까지는 권선용 전선은 규모는 작지만 27.5%의 고도성장을 하였으며 전력케이블은 10.8%의 저성장을 하였고, 수요가 가장 많은 통신케이블은 9.6%의 성장을 하는데 그쳐 '81~'91년까지 전선전체의 수출은 11.1%의 성장을 하는데 그쳤다.

'91~'96년까지의 수출동향을 보면 수요가 가장 많은 통신케이블이 16.2%의 고도성장을 하였으며 전력케이블도 20.8%나 성장하였고, 수요가 가장 적은 권선용전선도 12.4%의 성장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17.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3〉 연도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연평균 증가율(%)		
																	'81~'91	'91~'96	'93~'96
권선용전선	3	1	2	4	4	5	7	21	23	33	34	42	24	36	53	61	27.5	12.4	36.5
통신케이블	66	87	91	48	57	79	88	126	88	66	165	238	279	210	260	349	9.6	16.2	7.7
전력케이블	30	32	40	43	32	46	59	70	51	58	84	73	94	116	177	216	10.8	20.8	32.0
계	99	118	133	95	93	130	154	217	162	157	283	353	397	362	490	626	11.1	17.2	16.4

'93~'96년까지의 수출현황을 보면 권선용 전선이 수출액은 적지만 36.5%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전력케이블도 32%의 높은 성장을 하였으며 가장 수요가 많은 통신케이블은 7.7%의 성장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16.4%의 낮은 성장을 하였는데, '94년 및 '95년에는 권선용 전선 및 전력케이블은 고도성장을 한 반면에 통신케이블은 '93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표 3 참조).

국별, 연도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전선전체 수출액 중 중국의 수출비중은 '93년에는 26.4%, '94년에는 28.2%, '95년에는 27.5%를 점유하였으며, '96년에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20%를 점유하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전선산업이 급성장하여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여 내수가 포화상태

로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중국현지투자 확대로 중국내에서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국은 일본으로 전체수출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30%의 높은 수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케이블 등 고급전선류보다는 범용제품인 전력케이블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공업국의 산업설비 확충에 따라 전선이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 수출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수출이 매우 부진하였으나 최근에 산업설비의 확충과 전화사업이 활발한 추진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수출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4 참조).

〈표 4〉 국별·연도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EU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기타	계
'93	105	25	29	5	4	14	11	52	11	16	125	397
'94	102	30	23	6	17	12	11	30	16	18	97	362
'95	135	43	25	16	39	30	14	19	14	11	144	490
'96	125	55	38	32	31	26	18	13	12	14	261	625
연평균 증가율	6.3	30.1	9.4	85.7	97.9	22.9	15.6	-58.7	2.9	-4.6		16.3

〈표 5〉 국별·품목별 수출현황

구분	전체				권선용전선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93	'94	'95	'96	'93	'94	'95	'96	'93	'94	'95	'96	'93	'94	'95	'96
중국	105	102	135	125	3	8	15	19	82	60	56	47	20	35	64	59
일본	25	30	43	55	1	3	7	7	8	7	9	9	16	20	28	39
싱가포르	29	23	25	38	3	6	7	7	16	10	12	15	10	7	6	17
필리핀	5	6	16	32	1	1	1	1	3	3	10	19	2	1	5	12
인도네시아	4	17	39	31	3	3	4	3	0	3	26	11	1	11	9	17
베트남	14	12	30	26	1	1	2	3	9	7	17	17	4	4	10	6
EU	11	11	14	17	0	1	1	3	9	6	9	10	0	4	4	6
홍콩	52	30	19	13	3	2	2	1	46	23	11	4	4	6	7	8
미국	11	16	14	12	1	1	2	1	7	8	9	7	4	7	4	3
말레이시아	16	18	11	14	5	6	6	5	4	9	1	2	7	3	5	7
기타	125	97	144	261	3	4	5	12	95	74	102	207	25	19	36	42
계	397	362	490	625	24	36	53	61	279	209	259	349	93	116	177	216

국별,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제일의 수출국으로 수출 주력품목은 통신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이며, 통신케이블이 중국 전체수출의 78%('93)~37%('96)를 점유하고 있는 전력케이블은 중국전체 수출의 19%~47%를 점유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케이블은 수출이 점점 줄고 있으며 전력케이블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표 5 참조).

권선용 전선은 중국에 수출이 가장 많으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이 비교적 많이 되고 있고, 통신케이블은 중국 다음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에 수출이 잘되고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에는 수출이 매우 저조한데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제품가격은 다소 고가이나 기술과 품질이 우월하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전력케이블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주 수출국가이나 중국은 우리 기술을 추격해 와 앞으로 중국에의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에의 수출이 활발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수입

전선의 수입은 종류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0년대에는 연평균 13.2%의 성장을 보였는데 '80년대 전반기가 '80년대 후반기보다 수입이 많았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13%대를 유지하였지만 '90년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더욱더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81~'91년까지 10년 동안은 연평균 13.2%의 수입증가를 나타내었으며, '91~'96년까지는 연평균 19.6%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86~'91년까지는 연평균 9.5%의 비교적 낮은 성장을 하였으며 '95년에는 '94년대비 55%의 초고도의 수입증가세를 보였고 '96년에도 '95년대비 26.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연도별 품목별로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81~'91년까지 10년 동안 권선용전선은 연평균 14.0%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91~'96년까지는 17.0%의 높은 수입증가를 보였고, '93~'96년까지 3년 동안은 56%라는 고도의 수입성장을 기록하였다. 통신케이블은 '81~'91년까지 10년 동안 수입이 14.9% 증가하였고 '91~'96년까지는 20.1%의 높은 수입증가를 보

〈표 6〉 연도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연평균 성장률(%)			
																	'81~'91	'86~'91	'91~'93	'91~'96
수입	35	36	48	55	53	77	74	93	99	80	121	94	155	151	234	296	13.2	9.5	13.2	19.6

〈표 7〉 연도별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연평균 증가율(%)			
																	'81~'91	'91~'96	'93~'96	
권선용전선	7	7	6	10	8	13	15	29	31	23	26	21	15	22	42	57	14.0	17.0	56.0	
통신케이블	12	9	13	21	17	23	21	20	15	19	48	17	39	62	102	120	14.9	20.1	45.4	
전력케이블	15	20	29	24	28	41	38	44	53	38	47	56	101	67	90	119	12.1	20.4	5.6	
계	34	36	48	55	53	77	74	93	99	80	121	94	155	151	234	296	13.5	19.6	24.1	

였으며 특히 '93~'96년까지는 45.4%라는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전력케이블은 '81~'91년까지 10년 동안은 연평균 12.1%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91~'96년까지는 20.4%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93~'96년까지 3년 동안은 5.6%로 수입증가율이 낮아 졌다(표 7 참조).

최근의 전선 수입동향은 수요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내수시장이 서서히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국별,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전선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96년에는 7300만불을 수입하였으며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6.3%로 낮지만 전체수입의 20~28%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일본으로 '96년에 6200만불을 수입하여 전체수입의 8% 내외이지만 연평균 30%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은 전체수입에서의 비중은 5% 내외이지만 중국은 연평균 85.7%, 대만은 연평균 97.8%의 높은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최근에 중저가제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150~20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 3년 후면 중국의 전선산업이

우리나라를 넘보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중국이 우리나라 제일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로부터도 '96년에 2600만불이나 수입되었으며 연평균 23%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 국가이다(표 8 참조).

〈표 8〉 국별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연도	미국	일본	EU	중국	대만	캐나다	싱가포르	기타	계
'93	105	25	29	5	4	14	2	11	397
'94	102	30	23	6	17	12	1	11	362
'95	135	43	25	16	39	30	1	14	490
'96	125	55	38	32	31	26	2	18	625
연평균 증가율	6.3	30.1	9.4	85.7	97.9	22.9	9.4	15.6	16.3

국별,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제일의 수입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 EU, 중국의 순서이나 최근의 수입증가 추세로 보아 중국이 금년에 제일의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전력케이블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케이블 중 중저급케이블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선용전선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데 전체 수입의 56%인 3200만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표 9〉 국별·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전체				권선용전선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93	'94	'95	'96	'93	'94	'95	'96	'93	'94	'95	'96	'93	'94	'95	'96
미국	35	53	81	73	5	9	11	15	7	27	50	40	12	17	20	18
일본	24	41	60	62	5	7	22	32	16	19	20	21	15	16	19	10
EU	66	18	25	60	2	2	3	3	6	6	8	16	58	10	14	41
(독)	6	7	10	9	2	1	2	1	3	4	6	1	1	2	3	2
(불)	54	3	5	35	0	0	0	0	3	0	1	5	52	3	4	29
중국	6	13	32	58	0	0	0	0	1	3	4	15	4	9	17	32
대만	12	12	17	10	0	0	0	0	4	2	3	4	8	10	14	6
캐나다	2	2	3	3	0	1	0	0	1	0	1	0	1	1	2	3
싱가포르	2	1	1	1	0	0	0	0	1	0	0	1	1	1	1	1
기타	8	1	15	29	3	3	6	7	3	5	16	13	2	3	4	7
계	155	151	234	296	15	22	42	57	39	62	102	121	101	67	91	119

있으며, 다음이 미국으로 전체수입의 26%인 1500만 불을 수입하고 있어 이 두 국가에서 전체 수입의 82%를 수입하고 있고, 그외에는 EU 등 일부 국가에서 조금씩 수입하고 있다.

통신케이블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전체 수입의 33%인 4000만불을 수입하고 있다. 다음이 일본으로 전체수입의 17%인 2100만불을 수입하고 있어 이 두 국가에서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는 EU와 중국에서 각각 1500만불 내외를, 대만에서도 400만불을 수입하였다.

통신케이블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수입1위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 업체들의 내수시장 지키기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전력케이블은 EU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전체 수입의 34%인 4100만불을 EU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수입의 27%인 3200만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 두 국가에서의 수입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는 미국에서 1800만불, 일본에서 1000만불, 대만에서 600만불, 캐나다에서도 300만불을 수입하였다.

전력케이블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EU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9 참조).

품목별, 국별 수입동향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업체의 내수보호가 어떻게 될까? 만일 단체수외계약이 해지되면 과연 우리나라 전선업체들이 중국과 얼마만큼 경쟁할 수 있을까? 무섭게 다가오는 중국의 물결을 우리가 얼마만큼 저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은 오로지 우리 업체들만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비록 두 달이기는 하지만 품목별, 국가별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2월까지의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총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9%로 지난해의 평균 수출증가율 27.7%의 1/4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선의 수출이 잘 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통신케이블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4900만불로 전체수출의 5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력케이블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8%가 증가한 3500만불로 전체 수출의 38%를 점유하고 있고, 권선용 전선은 6.4%가 증가한 900만불로 전체 수출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표 10 참조).

〈표 10〉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연 도	권선용전선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계
'97. 1~2	9	49	35	9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6.4	7.7	5.8	6.9

국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100만불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수출액보다 57.7%가 감소하였고, 일본에는 600만불이 수출되었으나 전년대비 15.1%가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200만불로 전년대비 12.2%가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싱가포르에는 700만불이 수출되어 전년대비 106.5%나 수출이 증가하였고, 필리핀에는 600만불이 수출되어 전년대비 70.6%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EU에는 300만불이 수출되어 47%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고, 인도네시아에는 500만불이 수출되어 15.3% 그리고 홍콩에는 200만불이 수출되어 36.2%가 증가되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미국과 일본에는 날이 갈수록 수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신흥공업국인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이 끝나는 2~3년 후면 수요는 줄고 또 기술은 향상될 것이며, 중국의 생산성

〈표 11〉 국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EU	홍콩	미국	기타	계
97.1~2	11	7	6	6	5	4	3	2	2	46	92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577	106.5	70.6	-15.1	15.3	8.9	47.0	36.2	-12.2		6.9

향상과 품질향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표 11 참조).

국별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권선용 전선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며 전체수출의 38.7%인 약 400만불이 수출되었고 그외에는 일본, 싱가포르에 각각 약 100만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각각 약 500만불 정도를 수출하였다.

통신케이블은 체코, 파키스탄, 필리핀에 각각 약 600만불이 수출되었고 이집트에 500만불, 싱가포르에 400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중국, 루마니아, 스리랑카에도 각각 300만불이 수출되었다. 그외에도 베트남, EU, 미국, 이디오피아에도 각각 100만불 이상이 수출되었다.

전력케이블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수출되었는데 전체의 23%인 780만불이 수출되었으며, 그 다음이 중국 인도네시아로 각각 400만불 이상이 수출되었고, 일본과 싱가포르에는 각각 약 300만불, 그리고 베트남에 200만불, 파키스탄과 홍콩에 150만불, EU 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각각 100만불 전후로 수출되었다(표 12 참조).

금년 2월까지의 수입동향을 보면 수입은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권선용전선의 순으로 수입이 되었다.

〈표 12〉 국별·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중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필리핀	일본	체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스라엘	기타	계
권선용전선	4	1	0	0	1	0	0	1	0	0	2	9
통신케이블	3	4	6	6	2	6	5	0	2	0	14	48
전력케이블	4	3	2	0	3	0	0	4	2	8	9	35
계	11	8	8	6	6	6	5	5	4	8	25	92

권선용전선은 전체 수입의 21%인 천만불이 수입되었으며, 통신케이블은 45.8%인 2200만불, 전력케이블은 33.3%인 1600만불이 수입되었다.

통신케이블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6%나 증가되었고 전력케이블은 21.8%가 증가되었는데 최근들어 전선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어 있어 우리 업체들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내수시장이 급속히 잠식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표 13 참조).

〈표 13〉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연 도	권선용전선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계
97.1~2	10	22	16	48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4	34.6	21.8	23.2

국별 수입현황을 보면 주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 3개 국가가 전체수출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수입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금년 2월까지의 수입은 1159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44.5%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고가의 전선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고가제품이어서 수입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EU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의 높은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주 수입국은 폴란드, 독일, 영국으로 폴란드에서는

210만불을 수입하여 전년 대비 85%가 증가하였고 독일에서는 166만불을 수입하여 93.5%가 증가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41만불을 수입하여 전년 대비 132.3%가 증가하였다. 캐나다에서도 150만불이 수입되어 544.6%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고 호주에서는 80만불을 수입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7.6%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14 참조).

〈표 14〉 국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중국	미국	일본	EU	대만	캐나다	호주	기타	계
'97.1~2	12	11	11	7	2	2	1	2	48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4.5	1.6	-1.8	93.3	-9.8	554.6	167.6		23.2

국별·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권선용 전선은 일본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데 646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의 수입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권선용전선 전체 수입의 67.8%를 점유한다. 미국에서는 141만불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가 감소한 액수이며, EU에서 55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6%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44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의 수입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케이블은 중국, 미국, EU 및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 미국, EU 3국에서 1578만불을 수입하여 전체수입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567만불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2%의 높은 수입 증가를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558만불이 수입되었으나 전년에 비하면 7.6%의 수입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EU에서는 454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329.7%의 아주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였고, 일본에서는 297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18.6%의 수입 감소세를 보였다.

EU 중 불란서에서는 146만불이 수입되어 무려 700.9%의 수입 증가를 보였고, 독일에서는 105만불이 수입되어 역시 145.47%의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그외에는 호주에서 67만불, 벨기에에서 68만불, 이스라엘에서 47만불 등이 수입되었다.

전력케이블은 주로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전체수입의 61%인 992만불이 수입되고 있다. 이 중 중국에서는 592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37.3%의 수입 증가세를 보이며 전력케이블 전체수입의 36.4%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400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44.6%의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는 144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11.5%의 수입 감소세를 보였으며, EU에서도 172만불이 수입되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6%의 수입감소세를 보였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104만불이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1.8%의 높은 수입 증가를 보였고, 대만에서 89만불, 홍콩에서 28만불이 수입되었으며, EU국가 중 불란서에서 63만불, 영국에서 51만불, 스위스에서 46만불, 독일에서 33만불이 수입되었다(표 15 참조).

〈표15〉 국별·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중국	미국	일본	EU	대만	캐나다	호주	기타	계
권선용전선	0	1	6	1	0	1	0	1	10
통신케이블	6	6	3	5	1	0	1	0	22
전력케이블	6	4	2	1	1	1	0	1	16
계	12	11	11	7	2	2	1	2	48

이상과 같이 두달 동안의 수출입 동향 분석에서 어느 종류의 전선이 어느 국가로 수출입이 많이 되고, 얼마만큼 수출입이 되는가하는 추세를 알아 보았으며 이 추세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개개 업체가 자기생산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수출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해 및 금년 2월까지의 국별·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첨부하니 사업수행에 참고하기 바란다.

<첨부 1>

전선수출

(1) 국별 전체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중 국	124,874	-7.5	10,669	-57.7
2	파키스탄	56,462	-	7,384	41.3
3	일 본	55,085	28.6	5,902	-15.1
4	이집트	38,313	81.7	4,868	-21.9
5	싱가포르	38,136	53.8	7,494	106.5
6	필리핀	32,111	101.9	6,388	70.6
7	인도네시아	31,464	-18.6	4,721	15.3
8	베트남	26,306	-11.1	3,569	8.9
9	태 국	19,313	120.0	3,133	-15.8
10	*EU(구주연합)	17,486	20.8	3,138	47.0
11	체코공화국	16,278	92.7	5,876	191.7
12	말레이시아	14,430	25.6	1,639	-36.6
13	홍 콩	13,179	-32.2	2,764	36.2
14	요르단	12,857	51.8	329	-
15	루마니아	12,521	-3.4	2,931	45.5
16	미 국	11,746	-15.2	1,687	-12.2
17	스리랑카	11,044	95.0	2,996	-
18	영 국	10,640	39.4	2,336	72.6
19	시리아	9,345	-	0	-
20	오스트레일리아	9,160	-10.0	1,876	10.6

(3) 국별 통신케이블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파키스탄	50,958	-	5,822	15.4
2	중 국	46,850	-15.7	2,959	-72.8
3	이집트	38,129	80.9	4,868	-21.9
4	필리핀	19,282	95.2	5,769	214.3
5	베트남	17,328	1.4	1,582	30.6
6	체코공화국	17,266	92.8	5,874	191.8
7	싱가포르	14,590	20.0	3,801	111.9
8	루마니아	12,487	-3.3	2,931	45.5
9	요르단	12,041	-42.4	329	-
10	인도네시아	11,212	-56.2	221	-89.2
11	*EU(구주연합)	9,965	11.3	1,606	45.9
12	시리아	9,345	-	0	-
13	일 본	9,231	6.9	1,630	1.4
14	스리랑카	8,753	71.0	2,870	-
15	미 국	7,324	-7.8	1,102	-6.5
16	이디오피아	6,613	620.6	97	-
17	영 국	6,244	26.4	1,192	60.7
18	오스트레일리아	5,068	-25.3	604	-44.0
19	수 단	4,607	6.8	0	-
20	모리셔스	4,486	76.5	0	-

(2) 국별 전선용 전선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중 국	19,392	28.3	3,348	6.4
2	일 본	6,947	4.0	996	-11.3
3	싱가포르	6,609	-5.1	1,051	79.3
4	태 국	5,443	681.7	580	67.5
5	말레이시아	5,082	-11.3	635	-4.7
6	인도네시아	3,001	-24.8	489	653.4
7	베트남	2,769	26.4	46	-89.2
8	멕시코	2,236	197.1	200	52.3
9	*EU(구주연합)	1,764	60.1	159	-22.9
10	홍 콩	1,469	-28.2	478	104.3
11	인 도	1,411	-43.8	114	-53.5
12	미 국	1,073	-47.3	106	-62.1
13	필리핀	1,010	-30.3	110	-20.3
14	오스트레일리아	808	102.0	214	17.8
15	독 일	587	20.9	105	24.1
16	영 국	519	84.1	42	10.9
17	포르투갈	468	50.2	12	-
18	브라질	463	340.5	26	-
19	리비아	454	115.3	11	-90.3
20	사우디아라비아	269	-	0	-

(4) 국별 전력케이블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중 국	58,631	-8.7	4,462	-61.1
2	일 본	38,908	41.4	3,277	-22.4
3	인도네시아	17,251	90.2	4,010	102.2
4	싱가포르	16,938	198.1	2,642	111.6
5	필리핀	11,818	158.2	510	-71.2
6	태 국	11,147	58.4	1,021	-68.6
7	홍 콩	7,659	13.3	1,549	11.0
8	말레이시아	7,156	38.0	904	-46.8
9	베트남	6,208	-39.7	1,940	18.6
10	*EU(구주연합)	5,756	30.1	1,373	65.8
11	파키스탄	5,461	826.7	1,561	772.3
12	이스라엘	5,354	-	7,807	-
13	영 국	3,878	60.8	1,102	91.9
14	미 국	3,350	-13.2	479	3.6
15	오스트레일리아	3,285	9.9	1,061	142.0
16	스리랑카	2,101	304.8	126	-
17	방글라데시	2,005	-46.1	40	-76.4
18	대 만	1,766	-3.9	244	219.1
19	멕시코	1,512	59.3	283	57.1
20	부룬디	1,441	8.4	0	-

<첨부 2>

전 선 수입

(1) 국별 전체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미 국	72,567	-10.3	10,992	1.6
2	일 본	62,255	3.2	10,881	-1.8
3	*EU(구주연합)	60,449	140.4	6,805	93.3
4	중 국	58,269	80.7	11,590	44.5
5	프랑스	34,946	676.6	2,110	85.0
6	대 만	10,112	-38.9	1,650	-9.8
7	독 일	9,283	-10.5	1,662	93.5
8	영 국	6,650	24.2	1,415	132.3
9	말레이시아	4,674	109.1	458	-19.9
10	스위스	4,076	30.7	607	-14.2
11	핀란드	3,469	270.6	1	-99.3
12	홍 콩	3,365	32.6	745	107.7
13	캐나다	3,289	1.4	1,508	544.6
14	필리핀	2,979	585.8	59	-84.6
15	태 국	2,670	546.6	133	132.8
16	오스트레일리아	2,414	217.2	804	167.6
17	싱가포르	2,063	54.0	463	264.2
18	벨기에	1,939	143.5	759	638.2
19	미얀마연방	1,892	52.5	276	-3.3
20	멕시코	1,759	190.8	360	40.3

(2) 국별 전선용 전선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일 본	31,482	44.6	6,465	11.5
2	미 국	14,564	27.9	1,414	-30.0
3	말레이시아	3,702	115.8	436	-4.7
4	*EU(구주연합)	3,287	5.2	550	31.6
5	독 일	1,601	6.7	286	10.1
6	미얀마연방	1,271	2.4	67	-76.4
7	영 국	1,085	238.6	49	-40.3
8	오스트레일리아	394	139.8	46	-
9	뉴질랜드	352	-	24	-
10	스위스	312	4.0	32	-39.8
11	태 국	299	-	101	-
12	노르웨이	299	-70.5	0	-
13	중 국	274	439.8	0	-96.5
14	대 만	184	2.3	22	-61.3
15	프랑스	172	-54.0	26	192.4
16	오스트리아	128	666.5	8	136.3
17	이탈리아	117	-82.9	97	788.2
18	불 명	77	-	0	-
19	모로코	67	-	0	-
20	스웨덴	63	-64.7	7	-76.7

(3) 국별 통신케이블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미 국	39,693	-20.4	5,578	-7.6
2	중 국	26,558	77.3	5,668	53.2
3	일 본	20,587	3.3	2,970	-18.6
4	*EU(구주연합)	16,116	94.8	4,535	329.7
5	독 일	5,832	-6.7	1,049	145.4
6	프랑스	5,359	-	1,456	700.9
7	대 만	3,742	31.1	736	23.3
8	필리핀	2,623	504.0	59	-83.2
9	태 국	2,368	510.7	32	-43.9
10	영 국	2,161	316.7	853	-
11	오스트레일리아	1,775	576.1	668	158.4
12	멕시코	1,620	167.9	338	31.9
13	홍 콩	1,332	-20.6	236	52.4
14	스웨덴	1,161	176.6	399	97.8
15	이스라엘	1,125	52.4	471	71.4
16	싱가포르	892	204.8	160	234.1
17	스위스	890	36.5	112	21.3
18	미얀마연방	621	-	208	-
19	벨기에	444	-	683	-
20	이탈리아	388	161.6	19	-76.0

(4) 국별 전력케이블

순위	국 가	1996		1997.1~2월	
		금액(천\$)	증가율(%)	금액(천\$)	증가율(%)
1	*EU(구주연합)	41,046	198.5	1,720	-16.0
2	중 국	31,437	82.5	5,921	37.3
3	프랑스	29,416	713.2	628	-33.9
4	미 국	18,310	-6.6	3,999	44.6
5	일 본	10,187	-45.3	1,445	-11.5
6	대 만	6,187	-54.2	891	-24.2
7	영 국	3,404	-24.6	513	9.3
8	캐나다	3,080	27.4	1,043	361.8
9	핀란드	3,075	294.8	1	-99.3
10	스위스	2,874	32.7	462	-17.6
11	홍 콩	2,009	137.4	282	42.9
12	독 일	1,850	-29.3	327	90.3
13	벨기에	1,495	97.9	75	-24.5
14	싱가포르	1,111	9.8	159	100.4
15	이탈리아	957	55.6	109	-26.7
16	말레이시아	897	376.8	20	-82.8
17	스페인	427	-24.3	28	-73.4
18	필리핀	356	-	0	-
19	불 명	262	-	192	-
20	오스트레일리아	244	-26.9	89	114.0